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우울, 공격성 및 자아발달 단계에 대한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의 효과
The Effect of Client-centered Sandplay Therapy
on the Depression, Aggression and Ego Development Stage
of Children in a Community Child Center

곽 수 경*
Soo Kyung Kwak

서 미 아**
Mia Se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lient-centered sandplay therapy on the depression, aggression, and ego development stage of children at a community child center. A total of 12 sessions of client-centered sandplay therapy was conducted with 11 children. The Mann-Whitney U test was used for the homogeneity test, and the Wilcoxon signed rank test was used to verif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e-test and post-test data. The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SCT and HTP were examined and the statements of the children and social workers concerned were reviewed. The aspects of Kalf's ego development stage were also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depression of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was significantly reduced; the aggression was also significantly reduced; the children underwent three levels of ego development stage in order, and each child had a distinctive launching level and speed while undergoing the ego development stage. This study yielded evidence that the client-centered sandplay therapy was effective for children who suffered from depression or aggression.

Keywords : client-centered sandplay therapy, children in community child centers, depression, aggression, ego development stage

* 일반대학원 상담학 석사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miaseo@dankook.ac.kr)

I. 서 론

Achenbach(1991)에 의해 내재화와 외현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분류된 우울과 공격성은 그 문제가 아동의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 문제로까지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아동의 우울은 우울이 가지는 중요한 정서적 요인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가지게 되고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게 되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발전시킴으로써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아동 발달 시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심각한 적응상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김선숙, 2008). 이러한 아동의 우울은 청소년기의 정서 장애와 다양한 행동 장애, 사회 기술과 학업 성적의 저하로 나타나며, 성인기가 되어 범죄, 비행 행동, 약물 남용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우울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권석만, 2013). 그러나 이와 동시에 아동의 정서 문제의 치료 성공률이 성인의 치료 성공률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이 ‘골든타임’에 대한 희망 또한 갖게 된다. 아동기 우울은 치료할 경우 80% 이상 회복이 가능하지만, 약 25%~50%의 성인들은 첫 번째 장애가 나타난 후 2년 안에 재발을 경험하고 있다(이민수, 2005; 이윤경, 2015에서 재인용). 그렇기 때문에 치료 성공률이 성인에 비해 높은 아동의 우울에 대한 시기적절한 개입은 필수일 것이다. 아동 공격성의 경우,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될 정도로 아동기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동의 공격성은 아동기에 국한된 부정적 정서가 아니라 청소년기를 지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아동 개인 뿐 아니라 학교 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 문제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듯 성인과 다른 아동의 우울이나 공격성의 특징을 고려할 때 아동에 대한 시기에 맞는 개입이 요구되나, 양육에 대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의 정서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가족의 몫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가족 기능의 약화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학교의 Wee 클래스와 교육부의 방과후 돌봄교실,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CYS-Net(위기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책 등이 그 예가 된다. 그 중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지원, 지역 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기능의 강화를 추구한다. 2016년 12월말 기준 전국지역아동센터 통계 조사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 가정 아동을 비롯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아동, 한부모 가족 아동, 다문화 가족 아동, 조손 가족 아동 등의 우선보호아동이 정원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운영되며, 2016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4,107개의 지역아동센터

터에서 106,668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필요 아동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담 서비스는 국가 상담 기관,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 기관의 후원 등을 통하여 무료 또는 사설 상담 기관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아울러, 아동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시기에 맞는 개입을 위하여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을 비롯한 정서 문제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인지행동적 교육 프로그램(김미연, 2008), 자기직면법 프로그램(손은희, 2011)이 아동의 우울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술치료가 이혼가정아동의 우울감소에 영향을 주었으며(최혜지, 2017), 집단게임놀이치료를 통해 우울 아동(윤자영, 2009)의 우울 정도가 개선되었다. 아동의 공격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인지행동 집단치료(남순희, 2013), 이야기치료 집단상담(임다영, 김유미, 2010)이 초등학교 아동의 공격성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집단 용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공격성이 긍정적으로 조절된 연구(이은영, 2012)도 진행되었다. 서성희(2013)의 연구에서는 우울하고 불안하며 외현화 경향을 보이는 8세 아동이 모래놀이치료에서 음식 섭취를 통한 양육, 퇴행 놀이, 공격성 해소 작업을 함으로써 우울과 공격성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렇듯, 다양한 상담기법과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Lowenfeld의 세계기법에서 힌트를 얻어 Kaff가 고안한 심리치료 방법인 모래놀이치료의 경우, 인간의 무의식에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스스로 치유해가는 자율적인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 Jung의 실현 경향성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노치현, 황영희, 1998), 가족의 아동 양육 기능이 점차 축소되어 양육 환경의 개선 노력 등을 비롯한 부모의 도움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현대 사회에서 그 치료적 효과가 주목된다.

길지 않은 국내의 모래놀이치료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모래놀이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서성희(2013)의 연구 이외에도 모래놀이치료가 노인의 우울(장재우, 2010), ADHD 성인의 우울(김태영, 2010) 등 다양한 대상의 우울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가정 해체 위기 아동(반평자, 우주영, 2013)의 공격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 등 공격성과 관련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래놀이치료의 효과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모래놀이치료의 본질적 치료 원리라 할 수 있는 내담자 중심의 비지시적이면서도 내담자의 역동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1:1 개별 상담의 조건을 충족시킨 모래놀이치료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연구 목적상 통일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으나 연구자가 미리 설정한 프로그램을 통해 내담자를 이끄는 모래놀이치료는 모

래놀이치료가 가지는 본질적인 자기 치유적 역동이 발현되는 폭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의철(2011)은 개별 및 집단모래놀이치료에서 나타난 자아발달 단계를 분석한 결과 성차가 존재함을 밝혔으며, 이미숙(2010)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모래 상자에서 사용된 상징물이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볼 때, 미리 설정한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모래놀이치료는 각각의 아동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모래놀이치료가 가지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무의식에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스스로 치유해가는 자율적인 경향성을 신뢰하는 Jung의 실현 경향성을 기본 전제로 하여, 아동 스스로가 내적 힘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모래놀이치료(노치현, 황영희, 1998)는 가족의 기능이 약해진 현대 사회에서 한정된 국가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도 아동이 더욱 건강한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특히, 부모의 양육 태도를 비롯한 외부 여건의 변화보다는 아동 본인의 내적 힘을 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역동을 더욱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는 1:1 개별 상담의 조건을 충족시킨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의 상담적 가치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상자 표집에 연구자가 실험을 진행할 기관을 편의 추출한 준실험 연구 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두고 각각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준실험 연구는 적은 표본수로 무선택당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설계 과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만으로는 문자 이해 및 표현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개입 성과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아동의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아동의 정서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 개입을 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는 준실험 연구의 경우, 양적 연구의 한 가지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기 보다는 그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함께 활용하는 혼합 설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모래놀이치료에서 치료자의 역할은 이끌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지지하며,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Kalff, 1980). 즉, 연구자는 아동의 역동이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개입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 목적 상 각각의 아동들에게 동일한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치료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래놀이치료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래놀이치료의 본질에 따라 아동이 스스로의 속도로 모래놀이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된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개입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Boik과 Goodwin(2000)의 '세계 만들기', '경험하고 재배열하기', '이야기하기', '사진찍기', '전이', '분해하기'의 6단계에서 '분해하기'를 제외한 5단계에 따라 회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자의 개입만을 통일하였다. '분해하기' 단계를 제외한 이유는 아동이 창조한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여 다음 회기로 연결함으로써 사진, 사후 검사를 포함하여 12회기로 한정된 기간 내에서 치료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연구자 개입을 통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단계에 할당되는 시간 및 각 단계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전적으로 아동에게 부여함으로써 연구자 개입의 통일로 인해 내담자 중심 개인 상담의 조건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위치한 두 곳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중 본 연구의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아동들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무작위로 할당하였다. 참여한 대상은 8세부터 11세 사이의 아동들로, 남아가 7명, 여아가 4명 총 11명이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아동, 한부모 가족 아동, 조손 가족 아동, 다문화 가족 아동, 맞벌이 가정 아동 등의 우선보호아동이 정원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 입소 자격을 얻은 아동들이다.

연구에 앞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한 대상 아동 및 보호자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 연구 진행 과정 및 본 연구자가 학위 논문의 일환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가 논문으로 작성되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사진 촬영 및 녹음된 자료를 포함하여 대상 아동들에 대한 제반 자료는 가명으로 변경된 후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기밀이 보장되고 연구 종료와 함께 폐기됨을 밝혔으며,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문서로 작성되어 아동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다.

본 연구의 양적 연구에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는 실험 집단의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 1회기에 수행하였으며, 통제 집단도 이와 동일한 시기에 사전 검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실험 집단의 2회기부터 11회기까지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 10회기의 처치를 실시하였다. 12회기에 실험 집단의 사후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통제 집단도 동일한 시기에 수행하였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통계적 측정을 위해 사용한 측정 도구는 우울 척도와 공격성 척도이다.

본 연구의 질적 연구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문장 완성 검사와 집-나무-사람 그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를 진행하면서 매 회기마다 아동의 모래상자의 변화를 분석하고 아동의 경험의 변화를 면담하였다. 또한,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본 아동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결 후 담당 사회복지사를 면담하였다.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를 진행한 치료실은 두 곳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각각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분한 수의 피겨와 다수의 모래 상자를 갖추고 젖은 모래상자도 사용할 수 있는 수도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대상 아동 전체에 대해서 부모 상담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후 검사가 종료된 후에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부모 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제 집단에 대해서도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검사가 끝난 후 12회기 무료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였고, 아동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부모 상담을 실시하였다.

각 회기에 아동이 완성한 모래 상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였으며, 아동이 치료실에서 보여준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은 모두 녹음 및 기록하여 처치를 진행한 당일에 필사하였다. 질적 자료는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소속 모래놀이상담사 2급 자격을 갖춘 경력 5년의 상담사 1인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연구자와 공동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내용 및 회기 진행에 대하여서는 국제모래놀이치료전문가 자격을 갖춘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소속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았다. 이러한 타 치료자와의 공동 분석 및 슈퍼비전은 풍부한 질적 자료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연구자가 치료를 직접 실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달자 효과를 줄일 수 있으므로 내적 타당도를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4. 연구 절차

1) 예비 연구

본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 설계의 보완점을 찾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타

지역아동센터 아동 7명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 10회기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를 통해 10회기로는 아동의 역동이 발현되는데 충분하지 않은 기간인 점, 아동의 문자 이해 및 표현 능력의 부족으로 척도의 문항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추구한 영향으로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점, 대상 아동들의 부모가 맞벌이 부모 또는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부모로 부모 상담 일정을 마련하기가 어렵거나 미숙한 양육 태도를 숨기고자 부모 상담을 거부하고 아동의 모래놀이치료를 중단시키는 등 부모 상담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점이 드러났다.

2) 본 연구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위치한 두 곳의 지역아동센터 아동 중 본 연구의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12명에 대하여 실험 집단에 7명, 통제 집단에 5명을 무작위로 할당하였다. 그러나 실험 집단의 아동 1명이 사전 검사 시 정신과적 이상증후군을 보여 연구 참여를 중단시키고 진료를 의뢰하여 최종적으로 실험 집단에 6명, 통제 집단에 5명의 아동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는 매 회기 40분간 총 12회기로 구성되었으며, 일주일에 2회씩 6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예비 연구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족 및 부정적 양육 행동을 가진 부모 등 부모 상담이 여의치 않은 지역아동센터 아동 가정의 특성상 접수 면접 포함 부모 상담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 태도 변화 등을 포함하는 다른 변수의 개입 없이 대상 아동의 환경을 연구 기간 내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게 한다.

5. 측정 도구

1) 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1967)이 개발한 성인용 우울척도를 Kovacs(1982)가 아동의 연령에 맞게 변형시킨 후 조수철, 이영식(1990)에 의해 한국 아동에 맞게 변안된 척도인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를 사용하였다. CDI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세부터 17세까지 사용 가능하다. 본 척도는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우울 수준을 평가하는 자기 보고 형식이며, 3개의 문항 중 최근 2주간 자신의 기분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하는 문항을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에서 2점까지 채점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한 아동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수철과 이영식이 한국형 우울 척도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한국형 CDI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 반분

신뢰도는 .71, 내적 일관성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7문항 중 신뢰도를 저해하는 1문항을 제외한 후 총 26문항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때 Cronbach's α 는 .74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2) 공격성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격성 척도는 Buss & Durkee가 제작한 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를 노안녕(1983)이 번안한 것과 Buss & Perry(1992)의 공격성 척도를 정동화(1995)가 번안한 것을 심승원(2000)이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 보완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신체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흥분성, 부정성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공격성의 단일요인으로만 분석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도치된 문항인 1번 문항과 14번 문항의 점수를 역산한 후 총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아동임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심승원(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0$ 였다. 본 연구에서는 30문항 중 신뢰도를 저해하는 4문항을 제외한 후 26문항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때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3) 문장 완성 검사

문장 완성 검사(SCT)는 가족, 성, 자기 개념, 대인 관계의 네 가지 영역에 관한 태도를 알 수 있는 미완성된 불완전한 문장으로 자극을 제시하여 피검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 넣어 문장을 완성하도록 유도하는 투사적 검사이다(최정윤, 2010). SCT는 Ebbinghaus(1897)가 지능의 측정을 위해 최초로 사용한 이후, Stein(1947), Carter(1947) 등의 여러 학자들의 실험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입증되었으며, 현재 Sacks의 SCT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CT는 초등학생의 상황에 적합한 33문항으로, 자기 이해, 대인 관계, 부모 관계, 정서, 생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문자 이해와 표현 능력의 한계 및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아동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척도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4) 집-나무-사람 그림 검사

본 연구에서는 John Buck(1948)이 개발하고 Hammer와 Koppize(1969)가 발전시킨 집-나무-사람 그림 검사(HTP)를 사용하였다. HTP는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여 중성 자극인 집, 나무, 사람을 차례로 그리게 한 후, 각 그림에 대해 피검자가 나타내고 있는 개인적인 의미를 알

아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본 연구의 그림에 대한 질문 단계에서는 다른 척도 검사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아동 집중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의 개방적 질문만을 하였다. 이 검사는 척도 검사 시 문자 이해 및 표현 능력의 한계 또는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드러나지 못한 아동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6. 자료 분석

1) 양적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 따른 자료 처리 및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4.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응답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 및 기초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 도구인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coefficient를 활용하였다. 셋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우울 및 공격성에 대하여 실험 전 결과가 동일한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동질성 검증에 사용된 분석 방법은 Mann-Whitney U-test이다. 넷째, 각 집단의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의 실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전과 실험 후의 변화에 대한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였다. 가설 검정 시 전체적인 통계 처리에 대한 유의수준은 사회과학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p < .10$ 수준으로 설정하였다(이중수, 2009).

2) 질적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질적 자료 중 SCT에서는 본 연구의 우울 및 공격성의 정의를 기반으로 척도 문항과 연관성 있는 문항을 검토하였으며, HTP는 Machover(1951)와 Levy(1958)가 제시한 해석적 가설을 최정윤(2010)이 정리한 내용에 따라 아동의 그림에서 우울 또는 공격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찾아 정리하였다. 아동의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로 인한 우울과 공격성의 변화 경험은 회기 중 아동과의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하여 얻은 의미있는 진술 중 본 연구의 우울 및 공격성의 정의에 해당되는 보고를 중심으로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 3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의 변화는 지역아동센터 담당 사회복지사로부터 수집한 진술 중에서 본 연구의 우울 및 공격성의 정의에 해당되는 보고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자아발달 단계는 동식물 단계, 투쟁 단계, 집단으로의 사회화 단계로 나누어지는 Kalf의 3단계 자아발달 단계에 의거하여 장미경(2017)이 제시한 각 단계의 특징적 양상에 따라 아동이 만든 모래 상자에 나타난 단계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가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1) 양적 자료 분석 결과

(1)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실험 전 우울 및 공격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연구 대상 아동의 실험 실시 전 우울 및 공격성의 정도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동일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동질성 검증은 Mann-Whitney U-test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동질성 검증 결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우울 정도($Z=-.82, p>.10$) 및 공격성 정도($Z=-.64, p>.10$)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집단 간 동질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실험 전 우울 및 공격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측정도구	실험집단(n=6)		통제집단(n=5)		U	Z	p
	평균순위	순위합	평균순위	순위합			
우울(실험 전)	6.83	41.00	5.00	25.00	10.00	-.82	.41
공격성(실험 전)	6.67	40.00	5.20	26.00	11.00	-.64	.52

* $p<.10$

(2)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실험 전·후 우울 및 공격성의 효과 검증

표 2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 전과 치료 후 우울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통제 집단($Z=-.80, p>.10$)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실험 집단($Z=1.56, p<.10$)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통제 집단의 경우 실험 전 우울의 정도는 $M=13.00$ 점이었으며, 실험 후 우울의 정도는 $M=12.80$ 점으로 실험 전·후의 차이는 0.20점이었다. 실험 집단의 경우 실험

표 2.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실험 전·후 우울 변화 차이 검증

	사전		사후		사전-사후		W	Z	p
	M	SD	M	SD	M	SD			
실험집단(n=6)	16.00	8.63	8.83	4.31	7.17	5.98	15.00	1.56*	.06
통제집단(n=5)	13.00	5.10	12.80	4.38	.20	1.10	9.00	-.80	.78

* $p<.10$

전 우울의 정도는 M=16.0점, 실험 후 우울의 정도는 M=8.83점으로 실험 전·후의 차이는 7.17점으로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 후 우울의 평균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 후의 우울의 정도가 치료 전보다 유의하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 전과 치료 후 공격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통제 집단(Z=-1.24, $p>.10$)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실험 집단(Z=1.32, $p<.10$)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통제 집단의 경우 실험 전 공격성의 정도는 M=51.80점이었으며, 실험 후 공격성의 정도는 M=51.00점으로 실험 전·후의 차이는 0.80점이었다. 실험 집단의 경우 실험 전 공격성의 정도는 M=59.67점, 실험 후 공격성의 정도는 M=45.83점으로 나타나 실험 전·후의 차이는 13.83점으로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 후 공격성의 평균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 후의 공격성의 정도가 치료 전보다 유의하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실험 전·후 공격성 변화 차이 검증

	사전		사후		사전-사후		W	Z	p
	M	SD	M	SD	M	SD			
실험집단(n=6)	59.67	21.49	45.83	13.17	13.83	20.60	19.00	1.32*	.09
통제집단(n=5)	51.80	12.28	51.00	9.77	.80	7.16	8.50	-1.24	.89

* $p<.10$

2) 질적 자료 분석 결과

실험 집단 아동들의 SCT와 HTP에서 우울 및 공격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요소가 발견되었으나 통제 집단 아동들의 SCT와 HTP에서는 변화를 나타내는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실험 집단 아동 우울 및 공격성의 변화 양상은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 등 아동의 언어 반응을 이끌어내는 작업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회기 중 나타난 자발적인 언어 표현 및 행동을 분석한 결과 아동 스스로가 우울 및 공격성과 관련된 변화 경험을 언어 또는 행동으로 표현하였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사후 검사 종료 후 지역아동센터 담당 사회복지사와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제 3자의 시각으로 볼 때에도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에 변화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표 5와 같다.

표 4. SCT와 HTP에 나타난 실험 집단 아동 우울 및 공격성의 변화 양상

동	SCT		HTP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사전 검사	사후 검사
김 O O 여/8세	27. 나는 공부를 못한다.	27. 나는 공부를 <u>안</u> 해 서 못한다.	나무 가지, 뿌리가 뾰족함	나무의 가지를 부드럽게 그림
민 O O 여/8세	3. 나는 친구가 <u>많</u> 았 으면 좋겠다.	3. 나는 친구가 <u>많</u> 이 있다.	두 번째 성별의 사 람을 그리지 않음	두 번째 성별의 사람까지 그림
	12. 내가 가장 싫어 하는 사람은 김OO, 양OO이다.	12. 내가 가장 싫어하 는 사람은 <u>없</u> 다.	사람을 그릴 때의 필압이 약함	집, 나무, 사람 모 두 동일한 필압
	27. 나는 공부를 <u>좋</u> 아하지도 <u>않</u> 고 <u>싫</u> 어 하지도 <u>않</u> 는다.	27. 나는 공부를 <u>열</u> 심 히 한다.	날카로운 뿔이 달린 머리띠를 한 여자	장식 없는 머리띠 를 한 여자
박 O O 남/8세	23개의 문항을 '몰라 요.'로 대답	3개의 문항을 '몰라 요.'로 대답	나무 크기: A4의 1/5	나무 크기: A4의 2/3
송 O O 남/11세	22. 나의 나쁜 점은 <u>축</u> 구할 때 <u>멘</u> 탈이 약하다.	22. 나의 나쁜 점은 <u>과</u> 하게 <u>플</u> 레이 하는 것이다.	굵은 등치에 비해 가지는 가느다람	굵은 등치와 굵은 가지를 그림
이 O O 여/10세	20. 나는 때때로 <u>모</u> 르겠다.	20. 나는 때때로 <u>기</u> 분 의 <u>좋</u> 다.	굵은 등치에 비해 짧고 가느다란 가지	굵은 등치에 어울 리게 굵고 긴 가 지
	27. 나는 공부를 <u>보</u> 통으로 한다.	27. 나는 공부를 <u>잘</u> 한 다.		
정 O O 남/10세	31. 내소원이 마음대 로 이루어진다면 첫 째 소원은 <u>돈</u> 벌기. 둘째 소원은 <u>집</u> 큰 거 사기. 셋째 소원 은 <u>수</u> 영장 있는 것.	31. 내소원이 마음대 로 이루어진다면 첫 째 소원은 <u>돈</u> 이 많은 것. 둘째 소원은 <u>할</u> 머 니가 건강해 지는 것. 셋째 소원은 <u>친</u> 구 많 이 사귀는 것.	날카로운 형태의 부 속 건물이 있는 아 파트를 종이의 2/3 크기로 그림	종이의 1/5 크기로 단독 주택을 그림
	33. 내가 만일 동물 로 변할 수 있다면 <u>악</u> 어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u>사</u> 나워서.	33. 내가 만일 동물로 변할 수 있다면 <u>사</u> 슴 이 되고 싶다. 왜냐하 면 <u>뿔</u> 이 멋져서.	용이를 3개 그림	용이가 없음

표 5. 아동 보고와 담당 사회복지사 보고에 나타난 아동 우울 및 공격성 변화 양상

동	본인 보고 및 행동	담당 사회복지사 보고
김 ○ ○ 여/8세	치료 초반에는 동생이 우는 것이 너무 시끄러워서 화가 나고 엄마도 힘들게 해서 싫다고 하였으나, 이후 동생이 귀엽다고 반복하여 표현	어깨를 으쓱이는 틱이 사라짐 자신과 친하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의도적으로 차갑게 대했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짐
민 ○ ○ 여/8세	선물로 받은 케익을 언니에게 안주하면 때릴 것 같아서 집에 가기 싫었는데, 이름을 써놓고 언니에게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면 되겠다고 함 상담 중반 경 남자 친구들을 때린 적이 많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민망한 마음이 든다고 함	친구 1명과 교류하며 그 친구가 하는 활동만 참여 하였으나, 최근에는 모든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 그 친구가 전학 간 이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 해외 여행을 갔다고 거짓말하며 과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러한 경향이 사라짐
박 ○ ○ 남/8세	치료 초반 자신이 만들고 있는 모래 상자를 보지 말라며 연구자의 의자를 밀쳤으나 치료 중반 이후 연구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격을 배울 게임할 때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셔도 귀찮아서 말을 안들었는데, 엄마가 일하느라 힘드신 것 같아서 이제 말 잘 듣는다고 함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새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게 된 동생들과 잘 놀아주게 됨 지역아동센터 무단 결석이 잦고, 핸드폰 연락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결석할 때 미리 이야기 함
송 ○ ○ 남/11세	지역아동센터에서 문제집을 너무 하기 싫으면 계속 안하고 버텼으나 차라리 대충이라도 해버리는 것이 속 편한 것 같다고 말함 화를 내고 태클을 심하게 하면 오히려 경기가 안풀려서 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화가 나도 심한 태클은 안한다고 함	정해진 시간 안에 과제를 마치지 못할 것 같아 미리 울기도 하였으나 과제에 몰입하여 속도가 빨라졌으며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로 거절할 수 있음 예전에는 입을 내민 채 멍하게 앉아있어서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전반적으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
이 ○ ○ 여/10세	아빠가 성격책 읽기와 암송하기를 시켜서 미루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함 자신이 최근에 조금 착해진 것 같다고 말함	축구할 때 잘 안풀리면 혼잣말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행동이 사라짐 신체 능력이 뛰어난에도 체육 활동에 항상 소극적이고 활동 도중에 자주 이탈하였으나 최근에는 끝까지 참여함 또래 무리에서 왕따를 주도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라짐 지역아동센터 활동이 하기 싫어질 때 왜 자신이 참여해야 하나고 담당 교사에게 따진 적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행동이 사라짐
정 ○ ○ 남/10세	치료 초반에는 본인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으나 후반부에서는 미술을 잘한다고 말함 자신을 때리는 ○○를 벽돌로 찍어버리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종결 시 ○○가 그 정도로 싫지는 않다고 함	과제를 내줄 때마다 하나도 모르겠다고 안하는 것을 당연시하였으나 최근에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과도한 수준의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그러한 행동이 사라짐

2. 모래 상자에 나타난 자아발달 단계의 변화

그림 1은 화려한 인상을 주지만, 여성 피겨가 단독으로 등장하고 인물이 있어야 할 공간이 비어있는 등 관계성의 결핍이 드러났다. 그러나 다리 피겨를 볼 때 관계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사회화 단계의 초기 단계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에서 나타난 관계성의 결핍은 그림 2와 그림 3에서도 반복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그림 4에서는 남자와 여자, 한 쌍의 백조로 상징되는 대극의 합일이 나타났으며 만다라 형태에 가까운 연못 안의 섬이 존재한다. 이러한 대극의 합일이나 만다라는 Kallf가 제시한 자아발달 단계 3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집단으로의 사회화 단계에 나타나는 상징이다.



그림 1. 김○○ 2회기 모래 상자



그림 2. 김○○ 3회기 모래 상자



그림 3. 김○○ 4회기 모래 상자



그림 4. 김○○ 6회기 모래 상자

그림 5는 큰 동물과 과일을 사용하여 동식물 단계로 분류 가능한 형태로 배열되었으나, 6회기의 그림 8에서는 편을 나누어 전투를 하고 있는 투쟁 단계와 집과 병원, 항구, 마을이 등장하는 사회화 단계가 혼합되어 나타나 있다. 특히 그림 8의 모래 상자에서는 자아를 찾아 여정을 떠날 수 있는 항구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부서지고 다친 그림 7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전 회기인 그림 6에서 시작한 공사를 통해 건설된 것으로, 이후 더욱 깊은 차원으로의 내적 발달을 시작할 수 있는 단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 민○○ 2회기 모래 상자



그림 6. 민○○ 3회기 모래 상자



그림 7. 민○○ 4회기 모래 상자



그림 8. 민○○ 6회기 모래 상자

그림 9는 해골과 유령 피겨가 모래 위에 얹어져 있는 혼돈 상태의 동식물 단계로 표현되었다. 그림 10은 편이 불분명한 투쟁 단계, 그림 11의 배열 과정은 공룡과 캐릭터 피겨로 편이 분화된 투쟁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9회기에는 치료실 바닥에 그림 12의 남자와 여자 피겨가 마주보고 앉은 만다라 형태의 식탁도 만들었는데, 이는 대극의 합일을 이루는 집단으로의 사회와 단계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9. 박○○ 2회기 모래 상자



그림 10. 박○○ 4회기 모래 상자



그림 11. 박○○ 9회기 모래 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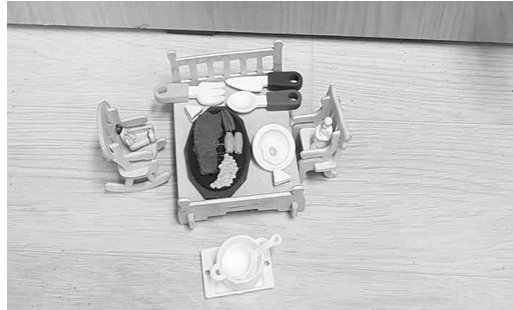


그림 12. 박○○ 9회기 바닥 배열

송○○은 치료 초반부에는 피겨를 사용하여 상자를 꾸미는 것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모래를 만지는 것을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중반 이후 적극적으로 모래를 만지고 많은 수의 피겨를 사용하여 투쟁 단계를 표현하였다. 그림 14에서는 편이 분화된 투쟁을, 그림 15에서는 자신이 직접 등장하는 투쟁을 표현하였다. 그림 16은 자아발달 단계의 두 번째 단계인 투쟁 단계 중에서 최종 단계인 리더가 존재하는 정교화 된 전투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13. 송○○ 2회기 모래 상자



그림 14. 송○○ 6회기 모래 상자



그림 15. 송○○ 7회기 모래 상자



그림 16. 송○○ 10회기 모래 상자

이○○은 피겨를 사용하여 모래 상자를 꾸미는 것보다는 젖은 모래를 만지작거리거나 소수의 피겨만을 사용하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그러나 그림 20에서는 백조 한 쌍의 결혼을 표현하며 대극의 합일을 이루는 사회화 단계의 상징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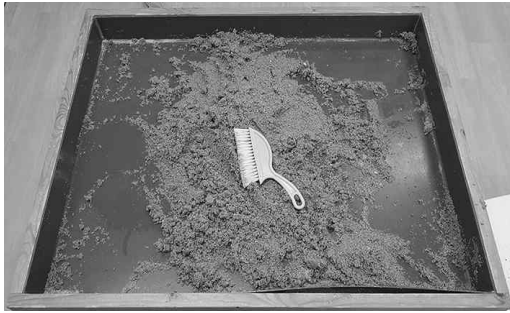


그림 17. 이○○ 3회기 모래 상자



그림 18. 이○○ 4회기 모래 상자



그림 19. 이○○ 5회기 모래 상자



그림 20. 이○○ 7회기 모래 상자

정○○은 제일 처음 만든 그림 21에서부터 마을을 건설하고 밭을 개간하는 3단계 사회화 단계의 초기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림 22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을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큰 동물로 표현한 자신의 공격성을 안전하게 다루지 못하여 마을 건설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림 23에서 알을 깨고 나오는 새끼 공룡을 표현하여 심리적 재탄생의 상징을 드러낸 후, 그림 24에서는 마을과 동물원을 한 화면 안에 만들면서 자신의 공격성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집단에 적응하는 사회화 단계를 표현하였다.



그림 21. 정○○ 2회기 모래 상자



그림 22. 정○○ 3회기 모래 상자



그림 23. 정○○ 6회기 모래 상자



그림 24. 정○○ 7회기 모래 상자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아동의 역동을 용이하게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아동이 1:1로 실시하는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총 12회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 집단 6명, 통제 집단 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전과 사후에 우울과 공격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통해 양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SCT와 HTP 및 아동과 담당 사회복지사의 보고를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Kalf의 자아발달 단계에 의거하여 아동의 모래 상자에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에 대한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한 결과, 모래놀이치료 전과 모래놀이치료 후 우울의 변화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모래놀이치료 후의 우울의 정도가 처치 전보다 유의하게 낮아졌음이 밝혀졌다. 또한, SCT와 HTP에서도 아동의 우울이 낮아진

것을 뒷받침하는 항목이 다수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회기 중에는 질문을 비롯하여 아동의 언어 반응을 이끌어내는 작업에 비중을 두지 않았음에도 아동 스스로가 우울과 관련된 변화 경험을 언어 또는 행동으로 표현하였고, 담당 사회복지사 또한 아동의 우울에 관련된 변화를 다수 보고하였다. 이는 우울·불안과 위축 행동을 보이는 유아에 대해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한 결과 우울·불안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한 박지연(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아동에 대한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한 결과, 모래놀이치료 전후 공격성의 변화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모래놀이치료 후의 공격성의 정도가 처치 전보다 유의하게 낮아졌음이 밝혀졌다. 또한, SCT와 HTP를 검토한 결과 아동의 공격성이 낮아진 것을 뒷받침하는 질적 자료가 다수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회기 중에는 질문을 비롯하여 아동의 언어 반응을 이끌어내는 작업에 비중을 두지 않았음에도 아동 스스로가 공격성과 관련된 변화 경험을 언어 또는 행동으로 표현하였고, 담당 사회복지사 또한 아동의 공격성에 관련된 변화를 다수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할 때,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가정해체위기 아동의 비행 및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 행동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반평자, 우주영(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아동이 모래 상자에 표현한 Kalf의 자아발달 단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들은 모두 3단계의 자아발달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나, 각각의 아동마다 그 시작 단계와 진행 속도가 상이하여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개별 및 집단모래놀이치료에서 나타난 자아발달 단계의 성차를 밝힌 이의철(2011)과, 연령과 성별에 따라 모래 상자에서 사용된 상징물이 상이함을 밝힌 이미숙(2010)의 연구 결과와 연결된다. 각각의 아동마다 모래 상자에 표현하는 자아발달 양상에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본 연구의 논의는 사전에 치료자에 의해 구조화된 모래놀이치료나 다수의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모래놀이치료가 개별 아동의 다양한 역동을 발현 시키는데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자신의 자아발달 양상을 표현할 수 있는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가 아동이 스스로를 치유해 가는 자율적인 경향성을 활성화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총 11명의 작은 표본수로 진행되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여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가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재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상 12회기의 한정된 회기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Kalf가 제시한 자아발달 단계 중 제 3단계인 사회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채 종결하는 경우도 발

생하였다. 개인의 자아발달은 차원을 달리하여 반복되는 나선형 발달을 이루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회기의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로 연구가 이루어져 더욱 깊은 단계의 발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으로 한정하였으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적 지지 체계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모 및 다문화 가족 아동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 등의 안정적인 지지 체계를 확보하지 못한 아동들에 대하여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가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효과가 있음을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둘째,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Kalf가 제시한 3단계의 자아발달 단계를 거치는데 있어서 각각 상이한 시작 단계와 속도가 있음을 밝혔다. 셋째, 적은 표본수로 무선헌당을 할 수 없는 준실험연구 설계의 한계 뿐 아니라, 대상 아동의 문자 이해 및 표현 능력의 한계 또는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타당도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혼합 설계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종합하여 볼 때, 치료자에 의해 모래놀이치료의 진행 속도가 결정되는 치료자 중심의 구조화된 모래놀이치료보다는 개별 아동의 자율적인 역동을 보장함으로써 치유 경향성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내담자 중심의 모래놀이치료의 상담적 가치를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 상담의 현장에서도 양육 환경의 개선 등 부모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의 아동들에게 내담자 중심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자율적인 치유력을 최대한 촉진하여 더욱 효과적인 상담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13). 현대이상심리학(2판). 서울: 학지사.
- 김미연 (2008). 인지행동적 교육프로그램이 아동의 우울과 인지적 오류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선숙 (2008). 빈곤아동 심리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태영 (2010). 모래놀이치료가 ADHD 성인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 상징과모래놀이치료, 1(1), 15-40.

- 남순희 (2013).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지*, 20(3), 545-564.
- 노치현, 황영희 (1998). 모래놀이치료. 서울: 동서문화원.
- 김태영 (2010). 모래상자놀이가 가정폭력피해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심리치료 학회지*, 7(2), 31-57.
- 박지연 (2008). 우울·불안과 위축행동을 보이는 유아에 대한 모래놀이치료 효과.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반평자, 우주영 (2013). 모래놀이치료를 통한 가정해체위기 아동의 비행 및 공격성 변화분석. *한국재활심리학회지*, 20(1), 65-100.
- 서성희 (2013). 우울, 불안, 외현화 경향의 8세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사례 연구. *모래놀이치료 연구*, 9(1), 1-39.
- 손은희 (2011). 자기적면법 프로그램이 아동의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심승원 (2000).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윤자영 (2009). 집단게임놀이치료가 우울 아동의 우울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이미숙 (2010). 아동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모래놀이치료 상징물 사용.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민수 (2005). *우울증*. 서울: 가림출판사.
- 이윤경 (2015). 아동의 분노정서가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분노대처방식과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은영 (2012). 집단용서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학년의 공격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6(1), 32-43.
- 이의철 (2011). 모래놀이가 아동의 자아발달단계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차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천의과대학교 대학원.
- 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개정판)*. 서울: 대영문화사.
- 임다영, 김유미 (2010). 이야기치료 집단상담이 아동의 역기능적 신념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31(1), 125-136.
- 장미경 (2017).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서울: 학지사.
- 장재우 (2010). 모래놀이치료가 노인의 정신적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우울과 자존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8-959.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7). 2016년 12월말 기준 전국지역아동센터 통계 조사.
- 최정윤 (2010). 심리검사의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 최혜지 (2017). 미술치료가 이혼가정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보건의료대학원.
- Achenbach, T. M. (1991). *Manual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Boik, B. L. & Goodwin, E. A. (2000). 모래놀이치료 - 심리치료를 위한 지침서. (이진숙 외 공역, 원제: *Sandplay therapy-a step-by-step manual for psychotherapists of diverse orientations.*) 서울: 학지사.
- Kalff, D. (1980). *Sandplay: a psychotherapeutic approach to the psyche*. Cloverdale, CA: Temenos Press.

투고일 : 2018. 10. 24
수정일 : 2018. 12. 08
게재확정일 : 2018. 12. 15